

가뭄에 '불 끌 물 부족' 광주 광주천 물로 화재 진압한다



31일 오후 광주 동부소방대원들이 가뭄 대비 소방용수 확보 훈련을 위해 장비를 점검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제한급수 소방용수 비상 대책 풍암저수지 등 57개 수원 확보 소방본부, 실전 대비 훈련도

광주천 물이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생명수'로 거듭난다.

광주지역에 유례없는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화재시 불을 끌 소방용수를 광주천 용수로 해결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가뭄이 계속될 경우 향후 소방용수도 바닥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광주소방안전본부는 광주천 등 '자연 수원'과 하수처리장 방류수 등을 활용해 소방용수를 공급하는 가뭄 대응 비상 대책에 나섰다. 31일 밝혔다.

앞으로 제한급수가 이뤄질 경우 상수도관이 단수되면 소화전 등에서 소방용수를 끌어올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충분한 양의 소방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했다.

일선 소방서에서 화재 진압 출동 시 운영하는 펌프차(중형 기준)에는 1대당 3t물이 채워지는데, 화재 현장에서는 보통 5분 만에 고갈된다.

소방당국은 지하 저수조에 비해 토 소방용수도 충분치 않다는 입장이다. 지하 저수조는 각각

동구 32개, 서구 6개, 남구 12개, 북구 15개, 광산구 11개를 권역별로 설치돼 있다. 하지만, 대형 화재 발생하면 저수조 물 역시 부족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소방당국의 설명이다. 저수조 역시 상수도관을 통해 물을 공급받기 때문에 제한급수가 이뤄진다면 소방용수 공급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소방당국은 추가 소방용수 확보를 위한 첫 번째 대안으로 '자연 수원'을 꼽았다.

광주소방안전본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광주 시내 전체 저수지와 하천 등 자연 수원 129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57개 수원을 소방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들 수원은 소방차 접근이 쉽고, 수심 또한 깊고 수량이 많은 조건을 통과했다. 광주동부소방은 우선 광주천, 선교저수지, 화산제 등 8곳에서 물을 끌어오기로 했다.

광주서부소방은 풍암저수지, 금호제, 광주천(자전거도로 인근) 등 6곳에서, 광주남부소방은 칠석1제, 칠석2제, 수촌제 등 3곳을 수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광주북부소방은 전남대학교 용지, 운암제, 각화제, 영산강 등 15곳을, 광주광산소방은 송산유원지 인근 황룡강, 소촌제, 평동저수지, 수안저수지 등 25곳 수원을 확보했다. 이들 수원에서는 실전

에 대비한 훈련도 이어지고 있다.

하천으로 버려지는 방류수를 소방용수로 재활용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광주서부소방은 지난 17일 광주환경공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하·폐수처리시설에서 나온 '재이용수'를 소방용수로 공급받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광주 5개 자치구 소방서는 광주환경공단 제1하수처리장, 제2하수처리장, 효천하수처리장, 빛그린폐수처리시설 등 4곳에 모인 재이용수를 쓸 수 있게 됐다.

재이용수는 하수를 정화 처리한 뒤 영산강에 방류하기 전 모아놓은 물로, 조정수나 살수용으로 활용된다. 광주환경공단에서 영산강에 방류하는 물은 하루에 60만여 수준이며, 공단 측은 이중 하루 평균 최소 5~6t의 물을 소방용수로 쓸 수 있도록 비축할 계획이다.

광주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소방용수를 확보하는 것은 광주시민들 생명과 직결된 일이다"며 "가뭄이 이어져도 화재 진압에 어려움이 없도록 소방용수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지역 주요 상수원인 동북댐의 저수율은 31일 기준 24.78% 밑으로 내려갔다. 이대로 가뭄이 지속되면 오는 5월 초 제한급수가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연제 기자 yjyou@kwangju.co.kr

흑산공항 건설 본궤도 오른다

건설 예정지 국립공원구역 해제
2026년까지 계류장 등 조성

국토 서남단 지역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흑산공항 건설이 본격화된다. 국립공원으로 묶여있던 공항 건설 예정지 일대가 다도해 해상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되면서 10년 넘게 표류했던 공항 건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지난 31일 전남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날 국립공원위원회 열고 흑산공항 건설 예정지를 국립공원에서 해제하는 안을 포함한 다도해해상 국립공원계획 변경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변경안은 흑산공항이 들어설 예정인 신안군 흑산면 예리 일대를 국립공원에서 해제하는 대신, 신안 비금면 명사십리 해수욕장 인근 5.5km² 구역을 국립공원으로 대체 편입하는 방안이다.

흑산공항 건설사업은 오는 2026년까지 1833억 원을 들여 신안군 흑산면 예리 산 11번지 일대 68만 3000㎡에 활주로(길이 1200m·폭 30m)와 계류장, 터미널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공항이 건설되면 50인승 소형 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해져 국토 서남단 섬 지역민들의 교통 편의와 관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남도 등은 흑산도 공항이 들어서면 서울과 부산-인천-광주 등 주요 도시를 1시간 안에 연결할 수 있어 주민 응급상황 대처와 관광객 유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지역 관광 등 산업 활성화로 연간 약 1535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645억 원의 부가가치, 1189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예상된다는 게 전남도 설명이다.

흑산공항은 지난 2009년 신안군의 '흑산도 경비행장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작으로 사업 추진이 논의된 이후 국토부의 '제 4차 공항개발 중장기 중

합계획(2011년)'에 반영되는 등 본격화하는 과정에서 철새 서식지 보호 및 환경 훼손에 대한 반대 의견 등으로 3차례에 걸쳐 환경부 심의가 보류되는 등 난항을 겪어왔다.

흑산도와 함께 제 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공항 건설 필요성이 제시된 울릉도 공항의 경우 지난 2020년 11월 공사 착수, 오는 2025년 준공해 2026년 1월 개항을 목표로 해왔다. 애초 흑산공항은 울릉공항보다 3년 앞선 2023년 개항이 목표였다.

전남도는 이같은 점을 고려해 신안군과 공동으로 국립공원면적 총량제도를 활용, 흑산도를 국립공원에서 제외하고 보존 가치가 높은 갯벌지역을 국립공원에 편입시키는 '국립공원 대체 편입지역 변경안'을 환경부에 건의하는 한편, 흑산공항 건설을 희망하는 주민여론조사를 관련 기관에 제출하는 등 공항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흑산공항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하는가 하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에도 포함되면서 정부 분위기도 호의적으로 바뀌었다.

전남도는 공항 부지가 국립공원에서 해제된 데 따라 연내 착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난 2017년부터 중지됐던 환경영향평가 및 시설설계 등 후속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신안군의 오랜 숙원사업인 2026년 흑산공항 건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삼석 의원도 "서남권 국민의 교통기부권 확보, 해양관광 기반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흑산공항이 건설되면 도서 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이동권이 향상돼 지역경제가 발전하고 응급의료서비스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우 기자 dok2000@kwangju.co.kr

정부, '韓 입국 제한' 中 추가조치에 '방역외 다른 고려 안돼'

정부는 중국이 1일부터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하기로 한 것에 대해 "방역 이외에 다른 고려 요인에 따른 제한 조치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31일 밝혔다.

외교부 "정부는 우리의 방역 조치가 국민 보호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당국자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중국 측 과도도 필요한 소통을 해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민항국은 이날 한중간 노선을 운영하는 한국과 중국 항공사에 보낸 통지를 통해 2월 1일부터 한국발 중국행 직항 항공편에 탑승한 사람에 대해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지난달 2일부터 시행 중인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를 최근 연장한 것은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중국은 이에 대해 차별적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남진 "김기현 몰라. 꽃다발도 그 쪽에서..." ▶3면

신앙파크호텔 무등산 속 흥물 방치 ▶6면

흙·불·빛... 강진청자, 겨울 낭만을 빛다 ▶14면

사랑과 감사의 69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3]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SGI서울보증 광주금남로지점 OPEN

2023년 2월 1일, SGI서울보증 광주금남로지점이 새롭게 시작합니다.

꿈을 보증하다 희망을 더하다

SGI서울보증